



코스피 3221.87 (+17.95)	코스닥 984.59 (+2.81)
금리 (미국 3년) 1.213 (-0.014)	환율 (원/달러) 1105.90 (-5.00) (1일)



[뉴스]
코로나 기세 꺾였다
5월 수출
32년 만에 최대폭 증가
02

‘반도체 전쟁’서 한계 드러낸 삼성전자 메모리 중심 탈피... 대규모 M&A 시급

5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제자리 장기계약 종료 하반기 상승 예상
메모리 위주 삼성, 수익률 저조 TSMC와 점유율 격차 더 벌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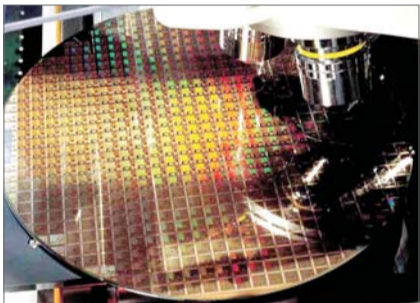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국내에는 그렇다 할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모리 중심 구조 때문. 수출 경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5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PC용 DDR4 8Gb D램이 3.8달러, 128Gb 16Gx8 MLC 낸드플래시가 4.56달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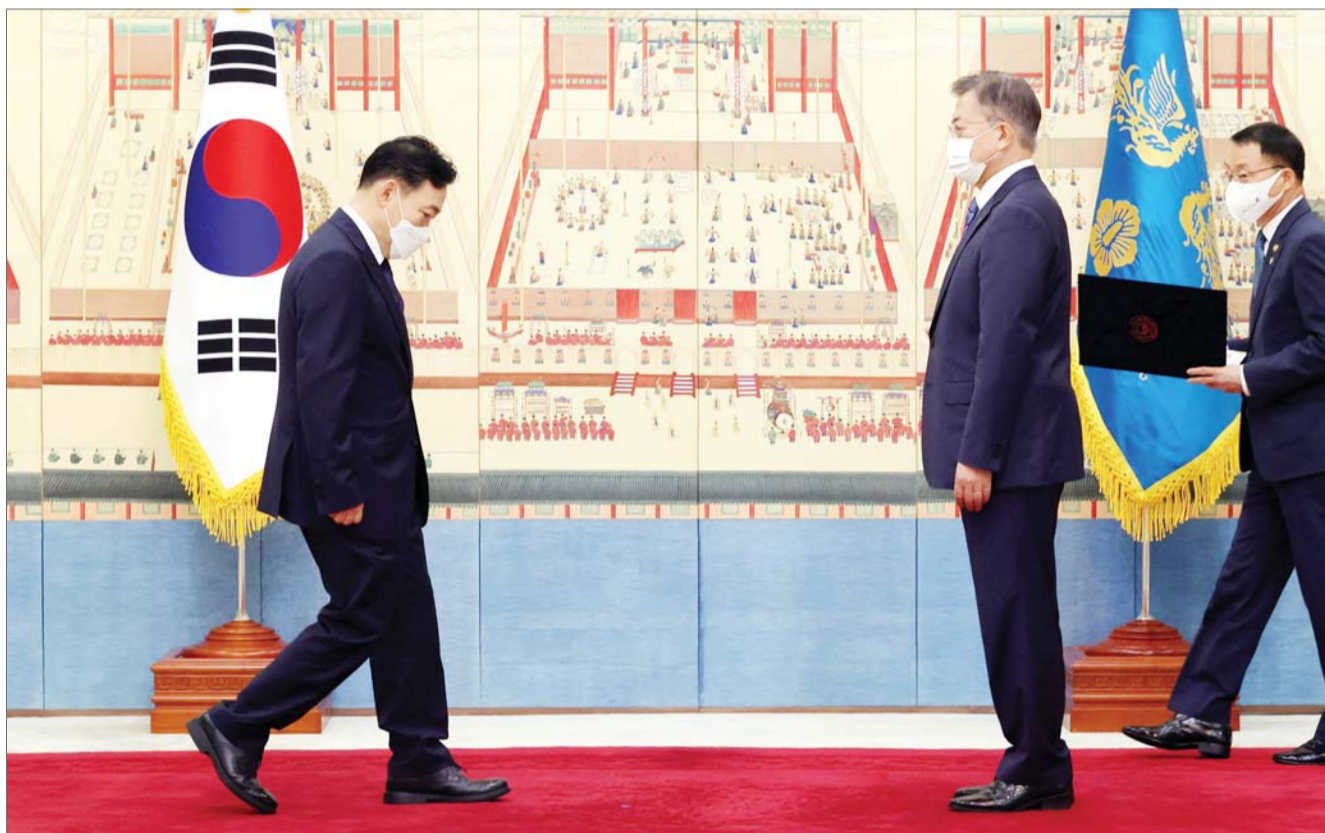
원인은 장기 계약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이 늘었고, 이에 따라 가격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

하반기부터는 저점에서 계약됐던 거래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5G 투자 증가 등 호재도 많다. 3분기 3~8% 상승할 것이라는 게 트렌드포스 분석이다.

다만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하면 ‘슈퍼 사이클’ 효과가 턱없이 부족



TSMC는 3년간 1000억달러의 초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TSMC 팹3. /TSMC



文, 김오수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업계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만 TSMC가 1분기에 전년 대비 25% 매출 상승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생존위기까지 거론됐던 중국 SMIC마저도 22% 성장했다. 실제 수익률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16% 증가에 머물렀다. DS부문만 보면 7.8%만 늘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 오스틴 공장 중단 영향도 있었지만, 메모리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진짜 반도체 산업이다.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서 수익률도 메모리와 비교해 훨씬 큰 편이다.

삼성전자도 다행히 TSMC와 유일하게 대적할만한 파운드리 시장 2위 업체다. 극자외선(EUV) 공정을 도입해 TSMC와 유이하게 5나노 수준을 양산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거듭해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점유율은 17%로 오히려 전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TSMC는 54%에서 55%로 더 올랐다.

EUV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7나노에 먼저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TSMC가 다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기술력을 삼성전자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사 방어에 성공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직원이 사라진다 매장 무인화가 가속

식당에서 직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업계의 무인화 추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은 데다, 매출 하락 및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만큼 인건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매장 무인화의 선봉장인 무인 단말 시스템 ‘키오스크(KIOSK)’ 시장은 2006년 600여억원 규모에서 2018년 3000여억원으로 5배 가량 성장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에는 도입이 활발해진 만큼 업계에서는 2023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76.6%, 64.3%, 92.4%를 기록했다.

식품업계, 무인점포 도입 확대
코로나 여파 임대료 부담 커져
인건비 절감 등 수익 개선 효과
맥도날드 키오스크 도입률 92%

최근에는 상주 직원 없이 100% 무인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키오스크의 경우 주문만 직접 받지 않고 매장 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직원이 상주하지만, 무인 식당은 100% 기계로만 운영하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포 형태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스마트 무인 도시락 서비스 ‘헬로잇박스(Hello-Eat Box)’ 점포 입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잇박스’는 냉장 및 냉동 도시락을 포함하여 신선식품, 음료, 스낵 등을 판매하는 100% 무인 플랫폼이다.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 등 신선식품도 갖추고 있다. 24시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기숙사나 생산시설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에도 식사할 수 있다. (4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



아워홈 무인 도시락 자판기 헬로잇박스

‘韓美회담’ 후속조치 논의... 민·관 협력 메시지 낼 듯

文-4대그룹 총수, 오늘 오찬 회동

최태원·정의선·구광모 참석 예정
삼성은 김기남 부회장 자리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을 한다. 2일 열리는 오찬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SK·LG·현대자동차·삼성 등 4대 그룹의 대미투자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 전자에서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의 대미투자 계획 발표에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사 차원의 대미투자에 미국 정부가 백신 협력으로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대 그룹은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달러(44조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당시 대미투자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4대 그룹사에게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6월 첫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59명... 3일 연속 400명대 /사진 뉴시스
▲ ‘박사방’ 조주빈, 향소심 징역 42년... 1심보다 3년 감형

▲ ‘세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범행” 변명... 유족들 분노
▲ 국방부, 성추행 피해 女부서관 극단적 선택에 “철저 조사”



▲ SNS에 안센 예약 ‘인증샷’ 봇물... 젊은층 참여 활발 /사진 뉴시스
▲ 외교부, 오늘 日공사 초치...올림픽지도 ‘독도’ 표시 시정 요구